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이들에게 이 길을....."

모처럼 주말에 여유가 생겨 아내와 아이들을 이끌고 시골집에 내려왔다. 12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어렵사리 키운 4남매마저 다 타지로 떠나보내고 혼자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아오신 어머니. 밤 늦도록 두 아이의 재롱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지금까지의 불효를 조금이나마 만회한 것 같아 한결 마음이 좋아졌다.

이튿날은 교회에 가기 위해 아침부터 온 가족이 부산했다. 그런데 막상 출발할 때가 되자 어머니는 차로 20분쯤 거리에 있는 교회를 굳이 걸어서 가겠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어머니, 그냥 제 차를 타고 가지요. 꽤 먼 거린데..."

"아니다. 예배 시작하려면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하니 그냥 걸어서 가자."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어머니의 뒤를 따라 나섰다. 집을 나선 지 20분... 아직 갈 길은 멀었는데 아이를 안은 팔뚝이 저러오기 시작했다.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땀에 와이셔츠는 이미 흠뻑 젖어 버렸고, 신나하던 첫째도 지쳤는지 저만치 뒤쳐져서 터벅터벅 따라오고 있었다.

"어보,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해요?"

아내 역시 입이 한 자는 나와 손등으로 연신 이마를 훔었고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묵묵히 길을 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원망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마침 길 양 옆으로 미루나무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는 언덕길이 시작되고 있었다. 마치 외국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길이 까마득하게 이어졌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 가죠."

어머니의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은 채 나는 그냥 길가에 주저앉았다. 아내와 아이들도 내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시더니 우리있는 쪽으로 다가와 나무에 기대 앉으셨다.

"이 길 생각나니?"

어머니가 감회어린 눈길로 여기저기를 돌아보시며 내게 말을 건네셨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만 하더라도 이 일대가 다 우리 땅이었던단다. 너희들 가르치느라고 조금씩 팔아서 지금은 구석에 작은 땅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가로수도 다 아버지께서 직접 심으신 거야."

그러고 보니 내 어린 시절 기억 속에는 나무를 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언제나 자리잡고 있었다

"아버진 왜 하필 열매도 안 열리는 미루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으셨을까요?"

나는 아버지의 수고가 너무나 헛된 것처럼 느껴져 대답을 기대하지 않은 질문을 했다.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너희 아버지 나무를 심으실 때면 항상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종일거리곤 하셨단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내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끼어 들었다.

"나무들아, 빨리 자라서 우리 아이들이 이 길을 걸을 때 시원한 그늘이 되어 주렴... " "..."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침묵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머님께서 헛기침과 함께 입을 여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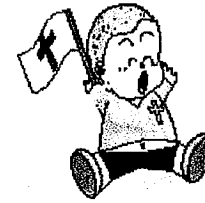
"그래... 그래서, 언젠가는 너희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 보고 싶었어."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 4권 18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5월 5일
☎520-9464/021-292-1639.☒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겨울 아침

"우리 집 작은 아이 성수가
볼록 거울로
개미를 쫓고 있다



추운 아침"

아주 짧은 "겨울 아침"이란 시를 읽는 그 몇초동안 어릴 때 문방구에서 파는 조악한 돋보기로 종이머 마른 잎을 태우던 생각과 빛을 모아 개미를 쫓으면서 개미가 타 죽는 것을 즐기는 순수치 못한 아이의 모습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공간을 두고 이어진 마지막 구절에 가서 가장 어린아이다운 모습을 찾아내고는 속단하고 정죄하기에 빨랐던 어른된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침에 개미에게 춤지말라고 볼록 거울로 따뜻하게 빛을 쫓이는 어린아이의 동심...

감히 세속에 물든 어른으로는 상상치 못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목전에 두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더욱 크게 들리게 한 시였습니다.

"....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18:3)"

엄마가 딸에게
어린이 주일을 축하한다
그러나 이 날은 앉아서 대접받는
날이 아니라 놓고 길러준
부모님께 봉사하는 날이어야 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그것은 가장 약한 자가 가장 자주
피하는 지저분한 피난처일 뿐이다.
너는 강한 자가 되라

주 일 예 배

(어린이 주일)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44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71(어린이주일)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453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최재학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8:15-17(신 126)	인 도 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몸은 어른, 영혼은 어린이"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05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 이
* 헌 금 기 도 Offera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5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Tea Time	주 일 안 내
5일	최재학	박병민	박병민 . 박일영	박일영 . 이광희
12일	권용일	박상욱	사카시다 . 양경배	사카시다 . 최기향
19일	김경숙	박일영	유광진 . 윤형권	양경배 . 김동숙
26일	김교섭	박정자	이광희 . 이재영	최재학 . 김경숙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답살듣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
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00 <수요예배> 저녁 7:30 <아동, 학생> 주일 낮 12시 <청년부> 토 오후 6시

◀ 교 회 소 식 ▶

- *어느새 5월입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 이번달에는 더욱 크신 하나님의 승리로운 인도하심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1. 등록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고성일, 김봉희 집사, ☎478-7488 ☒ 4 Calypso Pl. Rothersey Bay. (3구역)
*주기홍 성도(허현진 집사). 최병엽 집사(시모) ☒ 3 Cameron St. Takapuna(4구역)
- 2. '등록교우 성경공부' 8기(성령론). 마지막 모임
*일시: 월요일(29일) 저녁 7:30. 교회
- 3. 금요구역예배: 금주는 구역예배를 갖는 주간입니다. (매달 첫째주일 지난 금요일)
*구역장께서는 잘 준비하시고 독려하여 주십시오.
- 4. 다음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예고)
*"아버지주일은 9월 첫째주일(1일)입니다
- 5. 피택 향존직 교육(예고): 다음주 월요일(13일)로 연기합니다
- 6. 경로잔치: 남녀선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을 맞아 어르신들을 모시고 Hot Pool에 다녀옵니다 *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일자: 5월 6일(월)
*누구나 생각하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효행을 베푸는 남녀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7. 결혼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박기원, 박기혜 성도(10일)
 "우리 맞는 결혼 기념일, 못내 당신 줄 것 찾지 못하고 가슴 속 깊숙이 담겨어 있는 내 마음만 실어보내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 8. 추워지는 겨울: 의자에 방석이 준비되지 않아 더 추위를 느낍니다.
"방석이 준비 될때까지 가정에서 방석 1개씩 기증바랍니다. 겨울엔 두툼하게 옷을 입으시고 오시면 따뜻한 예배당을 만들어 드리지 못해 미안해 하는 마음을 조금 덜어주시게 됩니다. 요즘 독감 유행인데 건강 유의하세요~~~~"
- 9. 교우소식
*개업: 김반석. 정이지 집사. PC방 "CYBERIA". 83 Albert St. ☎ 307-9000
*김선영(청년부). Congratulation on your graduation
- 10. 요즘 독감이 기승을 부립니다. 자녀들을 따뜻하게 입혀주세요
윤주야 집사, 이지영 집사 두 분을 통해 중세의 심각성을 Real한 설명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의 건강 회복케 하여주심에 감사
- 11. 정기당회: 화요일 저녁 7:30.

<5월의 교회력과 모임>

일자	교 회 력	모 임
5일	어린이 주일	8기 등록교우 성경공부(6일) 당회(7일). 구역예배(10일)
12일	어머니 주일. 식사친교	피택 향존직 교육, 기도회(13일)
19일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14일)
26일	사랑의실천 "이삭줍기"	"약속의 아비" 기도회 (16일)